

기상이변 잦아진다...“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남도, 78개 품목 자부담금 90% 지원
태풍·우박·폭염 등 각종 자연재해 현실화
작년 2천억대 지급...경영 안정 효과 입증

전남도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자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22일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올해 하반기에는 엘니노 영향으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달 초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우박이 내려 도내 약 700여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등 기상 이변이 현실화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인이 가입할 수 있다.

벼와 배추를 포함해 총 78개 품목이 대상이

며, 주요 작물을 중심으로 품목별 가입 시기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이달부터는 벼와 대파, 고추 등을 시작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희망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이나 원예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보험료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농가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크게 낮춰 재해 대응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재해보험의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벼 깨씨무늬병 등 총 8건의 농업재해가 발생해 피해 면적이 3만6천32ha에 달했다.

이에 따라 683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지원됐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2천34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앙회장 직선제',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 '외부 감사기구 설치' 등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농협 전국 조합장 96% “직선제 반대”

농협 자율성 수호 결의대회 개최
“농협법 개정 충분한 논의 필요”

전국 조합장 96%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22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의 배경으로 최근 실시된 전국 조합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 등 농협 개혁방향에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결의대회는 일회성 행동이 아닌 지역 농축협과 조합장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해 온 문제의 연장선이다. 조합장들은 성명을 통해 현장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가지 요구 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의 농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국회 앞에 모인 것은 농협의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이번 농협법 개정은 속도 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태호기자



aT, 국민안전급식점검단 위촉

108명으로 확대 편성

식재료 위생·안전 관리 총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2일 “전남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현장 안전·위생점검을 위한 제9기 ‘국민안전급식점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급식점검단’은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2018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로 ▲지방정부·교육청 등과 점검하는 ‘합동점검단(58명)’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학부모점검단(30명)’ ▲전문가로 구성된 ‘급식점검단(20명)’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총 108명으로 확대 편성해 전국의 급식 공급업체를 점검하며 식재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위촉된 점검단은 효과적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현장 지도와 소통창구의 역할도 맡게 된다. 이들은 급식 공급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급식 환경을 만들고 개선 의견은 aT에 공유한 뒤 조치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국의 지방정부, 교육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점검단’으로 신규 편성돼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급식업체의 위생·안전은 물론 원산지까지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 출신 직원 등 식품안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급식점검단’은 상시 급식 공급업체를 점검하고, ‘학부모점검단’은 교육청의 추천으로 모집해 학부모의 시각에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직접 점검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으로 만들어 간다. /안태호기자

“광주 농기계임대사업소 토요일 문 열어요”

25일~6월13일 농번기 확대 운영

655대 보유...1인 1기종 3일 임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2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토요일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문을 연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번기 농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농작업 편의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난 2

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확대 운영 기간은 4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임대 대상은 광주지역 농업인과 시민이다. 사전에 농기계 안전교육 이수한 경우에 한해 1인 1기종, 최대 3일간 이용할 수 있다.

주말에는 임대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전화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원하는 농기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용곡(광산구), 용강(북구), 석정(남구) 등 3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트랙터, 관리기 등 63종 655대의 농기계를 보유, 농업인의 작업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각 임대사업소별 장비 현황과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토요일 확대 운영이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영농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은진기자



대리점 완전독점 대동강맥주 공급업체 공고 모집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아시아 최고의 라거!!!
국내 최초 (북한)대동강 맥주가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엽니다!

- 대동강 유역의 맑은 물과 엄선된 보리로 완성된 깊은 풍미
- 마케팅 없이도 고객이 먼저 찾는 이름
- 지역별 한정 대리점 모집을 통한 독점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 불황에도 대동강 맥주는 출시전부터 예약문의가 폭주하는 검증된 아이템입니다

모집대상 주류유통 유경험자 및 신규 사업 희망자(주류 면허 없어도 됨)

지원내용 영업권역보장 홍보물지원, 광고지원

특 전 초기 계약 시 계약금 최소화

성공은 타이밍입니다! 대동강 맥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각 시·군 선착순 모집 ★ 문의 | 자연과 생명 연구소 080-374-5046